

처리요구사항 (117건)

경기아트센터(11건)

5-57.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예술인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문턱이 높고, 연습 공간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청년예술인들의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

■ 처리결과 : 추진 중

⇒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2021년 4월 시나위오케스트라와 팝스앙상블에 청년연수단원 10명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청년연수단원제를 운영할 계획임. 또한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1년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산·학 협력사업 ‘댄스 오디션 <오픈 플로어>’를 진행한 바 있고, 2022년 하반기에도 ‘공공예술콘텐츠 영상화 사업’을 계획 중이며, 지속 가능한 지원책 발굴을 위해 계속 힘쓰겠음.

5-58.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경기아트센터 뿐 아니라 문체국 산하 기관 전부가 함께 모여 논의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

■ 처리결과 : 추진 중

⇒ 2022년 진행될 문체위 정담회(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국-산하 공공기관) 등 기관 간 협의체에서 청년정책 관련 제언을 발의하여, 긴밀한 논의를 통해 통합적인 시각에서 효과적인 청년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음.

5-59. 경기도 공연예술 활성화 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이고 대도시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편중되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남. 지역 쿼터제 등을 만들어 지역 안배에 힘쓸 것을 당부.

■ 처리결과 : 추진 중

⇒ 일방적인 지역별 쿼터 할당 시 대도시의 우수 공연단체가 역차별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어 반영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공모 진행 시 소규모 도시 또는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한 가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역예술단체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5-60. 전년도에 지적했던 예술단원들의 겸직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는 여전함. 후속 대책들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

■ 처리결과 : 추진 중

⇒ 2022년도 예술단원 겸직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지침을 벗어난 겸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적용하는 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5-61. 경기아트센터의 비전과 사업영역을 더 넓히고, 단원과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 전략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들을 잘 추진하길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ESG 신 전략체계 및 비전에 따라 '22년 신규 사업 및 정책 영역을 확장하고, 하반기 '경기아트센터 중장기 발전 방향 설정 및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전체적인 사업 추진 상황 검토 및 조정하겠음.

5-62. 경기앙상블 단원이 2개월 정직, 1년 출연금지 처분 받은 후 다른 곳에 무단 출연 하였음. 모르고 있었다면 단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임을 지적. 아트센터의 기강 확립과 적절한 처분을 요구.

■ 처리결과 : 추진 중

⇒ 감사팀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분할 예정임.

5-63. ‘태양’이라는 연극이 외부단원들과 협업으로 제작돼 지금 발표 중인데 서로의 긴장감을 높여 수준 높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태양’은 경기아트센터와 두산아트센터의 공동제작으로 경기도극단 상임연출가 연출과 연기단원이 출연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객석점유율 100%, 유료점유율 79.8%를 달성하였으며, 동아 연극상 심사대상 후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앞으로도 작품기획에 심혈을 기울이겠음.

5-64. 홀로그램콘서트와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댓글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응할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공동주관사인 (주)문화방송에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제작진에 대한 감사 의견도 다수 존재함을 확인함. 앞으로도 공연리뷰 및 반응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공연 별 고객만족도를 극대화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음.

5-65.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어떤 매체에 배포를 할 계획인지 유료화도 필요하고 매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유튜브 뿐만 아니라 OTT를 통한 배포, 틱톡, 인스타그램 등 젊은층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의 흐름을 파악해서 콘텐츠 배포방법을 고민해 주길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경기아트센터는 공연장 최초로 OTT(왓챠_Watcha)를 통해 공연 유월과 금악(예정)을 배급하였으며, 2022년에도 경기도 우수공연영상의 배급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와 매체별 특성을 감안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친구 등)를 통한 공연 홍보와 관객소통에도 힘쓰겠음.

5-66. 공익성 취지에 맞게 경기북부 권역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지역에서 군인, 실향민, 소외계층 등이 골고루 문화 혜택 받을 수 있고, 남북교류의 전환점 될 수 있는 문화향연 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

■ 처리결과 : 추진 중

- ⇒ 아트센터의 주요 전략사업 ‘문화나눔’은 도내 문화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군인, 실향민,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21년에는 경기북부권역 수혜 확대에 집중 추진, 전체 사업 중 북부 비중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음(’20년 경기북부 권역 30% → ’21년 경기북부 권역 51.6%)
- ⇒ 특히 군부대 공연의 경우, ’17년 13회 11,550명 관람, ’18년 14회 12,610명 관람, ’19년 22회 14,450명 관람 등 수혜규모를 지속 확대해온 바 있음(’20~’21년에도 행사 계획을 수립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인해 취소) ’22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분위기 속, 군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부대 공연을 확대 추진할 계획임.
- ⇒ 또한 실향민 대상 남북교류 확대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21년 <우리 하나>(9.25, 부천), <평화음악회>(9.29, 평택) 공연을 진행했음. 향후 하나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기북부 권역에서도 실향민 대상 공연을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경기북부 권역에서의 대규모 문화예술축제 기획은 코로나19 확산 지속 상황과

예산 문제 등으로 현 시점에서 단기적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문화예술을 통한 남북교류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차후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음.

5-67. 지금 디지털아카이브 고도화 시행을 했는데, 12월에 콘텐츠가 본격 제공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미 열려 있고 시청각물의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 세심하게 챙기기를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경기아트센터 아카이브는 기능 고도화와 디자인 리뉴얼을 완료하여 '21.12월 초, 정식 오픈되어 현재 시청각물을 포함한 모든 자료가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음. 추후 흥미로운 콘텐츠를 더욱 탑재하여 경기아트센터 공연예술자료의 보존, 개방,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음.

건의사항 (289건)

문화체육관광국(1건)

5-163. 관람객의 동선, 나이, 연령 같은 부분들은 마케팅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 부분인데, 실무자가 그만두었을 때는 데이터들을 또 새로 구축해야 하며 실무자의 경험치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 문제임. 특히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만들고 그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도에서 다른 행사나 축제나 전시를 할 때도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체계화 해주길 요청.

■ 처리결과 : 완료

⇒ 현 티켓판매대행사인 인터파크티켓 관리자 시스템 내 ‘판매리포트’ 및 ‘CRM’ 기능을 통해 관객 메타정보 확인 및 공연별 판매추이 분석이 가능하며, 각 기획자들은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동의 여부 등 관객이 설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본 데이터를 공연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음.

데이터 개방 가능 범위 및 제공 방법 등에 대한 기관 간 통합 가이드 도출 및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도, 문체국 내 타 기관과 긴밀히 논의하겠음.

경기아트센터(32건)

5-251. 인구 1만 명당 평균 자체 기획 문화예술공연 건수가 전국평균에 비해 낮음. 경기아트센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군의 문화자체 사업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길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경기아트센터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예술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유월”(광명문화재단), “그레비티스페이스”(평택문화재단, 경주문화재단), “향화”(서울예술단)과 같은 기획공연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총 114회의 다양한 문화나눔 등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음.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축제등과 연계하여 문화사업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더욱 노력하겠음.

5-252. 경기아트센터에서 OTT 플랫폼을 통해 공연 콘텐츠 배급을 시작한 것에 칭찬하며, 주사용자가 아무래도 2030세대이니 그 세대에게 공연문화가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기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경기아트센터는 공연장 최초로 OTT(왓차)에 유월과 금악(예정) 공연영상 배급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에도 경기도 우수공연영상의 배급과 지원을 지속할 계획임. 2030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짧은 형태(Short Form)의 공연홍보영상으로 관객의 관심이 공연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음.

5-253.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의 MOU이후 꾸준히 협약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아트센터 시설물을 활용해서 도내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의 역할 등도 시도해볼만 하다고 제안.

■ 처리결과 : 완료

⇒ 2022년 하반기 “공공예술콘텐츠 영상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청년예술인 및 청년스태프에게 공연 무대 및 영상제작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아트센터를 비롯한 경기도 거점 공연장을 중심으로 도내 지역 예술인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기획하겠음.

5-254. 아트센터는 도민들과 함께하면서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진짜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갇히지 말고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

■ **처리결과 : 완료**

⇒ 2022년 본부 기획공연 라인업 기획 시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 흥행성 대중예술(인기 대중 콘서트, 뮤지컬, 발레 등) 공연을 다수 포함해 구성하였음. 더 많은 도민들이 공연예술을 통한 일상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전예술과 대중예술의 균형 있는 프로그래밍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음.

5-255.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사업의 성과가 좋다는 것에 칭찬하며, 좀 더 발전하려면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더 혹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

■ **처리결과 : 추진 중**

⇒ 2022년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예술방송국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이를 반영한 향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

5-256.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한글 사용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을 지적.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이 한글 사용에 대해 좀 더 심혈을 기울이길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경기아트센터 내 사업에 대하여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먼저 사업부분에 대한 한글 대체어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어려운 한자어 및 옛 일본어 등의 사용 또한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예정임.

5-257. 문화 혜택을 받기 힘든 경기도 외곽지역에 있는 도민들의 소속감이 매우 떨어
짐.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의 대표 축제를 만들
어 보길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2019년에는 5개 경기도예술단과 함께 하는 순회공연을 브랜드화한
‘경기아트페스티벌’을 기획하였음(포천, 양주, 양평 3곳에서 진행 예정이었으나
돼지열병 확산으로 일부만 진행).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도 외곽
지역에서 축제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아트센터
브랜드 축제를 더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하겠음.

5-258. 자기 기관과 조직의 우선순위에만 매몰되지 않고 문체국 산하 타 공공기관과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기아트센터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처리결과 : 추진 중

⇒ 2년간(’20~’21년) 공기관대행사업 “LET’S DMZ 평화예술제”를 추진하면서
경기도 산하기관(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킨텍스)*과 협업하여 문화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경기아트센터(콘서트), 경기문화재단(전시 및 체험행사),
경기연구원·킨텍스(학술포럼) 담당
또한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을 위해,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인디밴드
지원), 경기관광공사(예술인참여 도내 관광지 등 홍보)와 협업을
진행하였으며,앞으로도 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음

5-259.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내역이 충분하지 않음. 조치 결과 작성 시 충분한 내용을 담을 것을 요구.

■ 처리결과 : 추진 중

⇒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치하겠으며 충분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욕구 향유를 위해 노력하겠음.

5-260. 도시 지역 중심으로만 문화나눔 활동을 해서인지 경기 북부, 동부, 서부 등은 사실상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아트센터가 치유를 해주길 바람.

■ 처리결과 : 추진 중

⇒ 2021년 문화나눔 사업 북부지역의 비율은 51.6%였으며, 2022년 지속적으로 동·북부 지역의 공연을 확대하겠음.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어느 하나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문화나눔 사업의 지역 안배에 더욱 노력하겠음.

5-261.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함.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 처리결과 : 완료

⇒ 현재 경기아트센터의 2021년 출연금 집행 잔액은 전체 출연금인 380억원의 약 5%인 19억 원임(결산 전 예정액). 이는 2020년도 잔액 52억 대비 51% 감소한 금액으로 집행 잔액이 축소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아트센터 출연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인건비를 적절히 관리하여 적정 수준의 집행 잔액을 유지하겠음.

5-262. 연차가 오래된 단원과 얼마 안 된 예술단원들의 급여차가 심함. 급여와 복지의 처우에 대한 것들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

■ 처리결과 : 추진 중

⇒ 아트센터 노조와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노사 합의를 거쳐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5-263. 경기아트센터 재직이라는 커리어 하나가 외부에서 큰 경력임. 그런 인정을 받는 만큼 처신에 맞는 행동을 예술단원들은 해야 하며, 추후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의 책임인 만큼 관리에 소홀하지 말 것을 당부.

■ 처리결과 : 추진 중

⇒ 예술단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과 안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겠음. 또한 규정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하여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5-264. 사업비의 비중을 인건비보다 늘려 경기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라는 작년 제안의 결과가 아직 미진함. 좀 더 분발할 것을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2021년 아트센터 편성 사업비는 124억 원으로, 이는 2020년 대비 약 14.5%가 증가한 수치임. 앞으로도 레퍼토리 시즌제 공연의 질적 고도화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비 비중을 높여 나가겠음.

또한 '21년 추진하는 프로젝트예술단과 같이 인건비 비중을 늘리지 않고 유연하게 인력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등 대안마련에 힘쓰겠음.

5-265. 아트센터의 설립목적이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이므로 그 부분에 있어 아트센터가 얼마큼 충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나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안.

■ 처리결과 : 추진 중

⇒ 2022년 하반기에 경기아트센터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경기아트센터가 도내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객설문을 진행할 예정임.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아트센터의 사업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겠음.

5-266. 한 번도 공연 관람을 하지 않은 도민을 불러들일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공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트센터가 할 일임을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2021년 경기도예술단의 '이른 봄 음악회' 3개 공연 및 개관3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경기도예술단과 함께하는 야외공연 <요즘 예술>' 3개 공연을 무료공연으로 진행하여 아트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경기도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동시에 무료 온라인 관람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 및 유튜브 공개를 진행하여 물리적,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노력하였음. 앞으로도 도민의 관람 제약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음.

5-267. 도민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공연을 보여주거나 함께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도민과의 소통도 늘고, 피드백으로 인해 아트센터도 발전할 수 있다고 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면밀하게 진행하길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2021년에는 본 공연 외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악기나 장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순서가 포함된 진로체험예술교육 프로그램이 6회 진행됨. 2022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5-268. 청년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의 청년들이 설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무대를 아트센터에 서 만들어 주길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2022년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 운영(시·군 공모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군의 청년예술인들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들의 공연 참여율을 높여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5-269. 한국게임학회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MOU를 협약했는데 메타버스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이 일상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해주길 당부함.

■ 처리결과 : 추진 중

⇒ 2022년 경기예술방송국 운영을 통해 메타버스 접목을 시도할 예정이며, 4차 산업 기술과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관객과 예술가들이 공연장 이외의

공간에서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중임.

5-270. 다면평가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사건 관련된 민사소송 2건 있음. 소송과 관련하여 가급적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위의 소송을 진행하였음. 아울러 「경기아트센터 소송사무처리 지침」(2021.12.31.)을 제정하여 추후 소송 절차 진행 중 소송비용 미회수 등의 예산(세금)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였음.

5-271. 중장기 발전전략 TF팀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 시범사업으로 채용 공모 중인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도민과의 상생발전 방향에 큰 계기가 되길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2021년 경기도예술단 중장기 발전전략 TF팀에서 도출된 경기도예술단 중장기 발전전략 체계와 연계한 단기 혁신과제 6개 중 하나인 「2022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 시범사업을 통해 총 27명의 일자리를 마련하였음. 특히 경기도민에게는 가점 5점을 부여함으로써 경기도 내 실력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최종 선발된 예술단원 중 총13명(48%)가 경기도민으로 선발됨. 경기도예술단 비상임단원 신분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예술단 레퍼토리 공연 시 연습과 공연에 참여하게 됨. 2022년 12월 제2기 「2023년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단원」을 선발할 예정임.

5-272. 예비예술가들이 청년인턴이나 청년연수단원의 형태로 기간제 근무를 하고 경력을 인정받아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 이런 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찾길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4월 시나위오케스트라와 팝스앙상블에 청년연수단원 10명을 선발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청년연수단원제 운영을 위해 예산(150백만원)을 확보하였음. 연기, 연주자를 희망하는 청년은 연수단원으로, 공연 기획가 혹은 문화예술 경영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청년은 인턴으로 채용함으로써 무대 및 업무 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지속적인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하여 예산 및 사무공간 등 필요자원을 확보해 나가겠음.

5-273. 청년연수단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기 힘들다면 단기적으로라도 경기일자리재단과 상생협력을 통해서 인원을 늘리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2021년 경기아트센터 청년연수단원 사업과 더불어, 경기도일자리재단과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경기도예술단에 2021년 징검다리연수단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음. 앞으로도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겠음.

5-274. 권역별 상생방법으로, 경기도예술단을 권역별 거점 공연장을 정해서 지역과 협업하고 공연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계획할 것을 제안.

■ 처리결과 : 완료

⇒ 경기도예술단 레퍼토리 시즌공연과 초청공연을 수원 외에 용인, 오산, 화성, 고양, 성남 등에서 공연하였으며, 2022년에도 점진적으로 도내 타 공연장 공연을 확대하여 지역도민의 향유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5-275. 직책단원 부당해고 건과 관련, 공정한 원칙을 세우고 객관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길 바랍니다.

■ 처리결과 : 완료

⇒ 법원 재판을 통해 자체적인 인사조치를 진행하거나 규정 등의 미비사항 확인 시 시정 및 보완조치 시행하겠습니다.

5-276. 경기아트센터 내 인사위원회에 현재 노조대표나 노동자대표가 참관을 하고 있는지 노사화합의 측면에서 인사위원회 시 노조 대표를 참관할 수 있게 규정에 명문화하길 바랍니다.

■ 처리결과 : 완료

⇒ 단체협약서 제26조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조합 대표자 1인이 인사위원회에 참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명문화(2012년 제정 시)되어 있음.

5-277. 그동안 경기아트센터 전시공연들이 남부 쪽에 집중되어있다는 지적에 올해 북부 권에서 공연전시가 이루어진 결과 파악이 되는데 북부에서도 한두 곳에 몰려 있음을 지적.

■ 처리결과 : 추진 중

⇒ 2021년 문화나눔 사업 북부지역의 비율은 51.6%였으며, 2022년 지속적으로 동·북부 지역의 공연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어느 하나 소외받는 곳이 없도록 문화나눔 사업의 지역 안배에 더욱 노력하겠음.

5-278. 열린 문화 향유에 보면 온라인 콘텐츠 강화, 소규모 접근 공연 활성화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길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소규모 접근 공연 활성화) 2021년 코로나19와 비시즌 기간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레퍼토리 활성화를 추진하여 경기도예술단원 창작무대(4개 작품 730명 관람)와 직책단원 프로젝트(3개 작품 404명 관람)를 통해 소규모 공연을 수행하였으며, 2022년에도 차질 없이 소규모 접근 공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 (온라인 콘텐츠 강화) 2021년 경기시나위의 ‘뮤지컬 금악’ 및 경기도무용단 ‘경합_The Battle’의 영상을 제작하여 OTT를 통해 공개 예정이며, 2022년 레퍼토리 시즌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영상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그리고 경기예술방송국은 관객들이 쉽고 간편하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온라인 콘텐츠를 생산할 계획이며, 사회적 차별과 저해요소 없는 콘텐츠제작을 통해 열린 문화향유의 가치를 공유할 예정임.

5-279. 31개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문화나눔 사업의 경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체량 친밀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 부분
들이 생기지 않게 세심히 챙길 것을 당부.

■ 처리결과 : 완료

⇒ 2022년 문화나눔 공연 객원 단체 공개 모집·선발 예정임. 문화나눔 사업은
주기적으로 객원 단체를 공개 모집·선발하여 공연을 꾸리고 있음. 22년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단체를 선발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음.

5-280. 현재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을, 공공배달앱과 연계해
제공할 예정임.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 유통
을 통해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더 중요함.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
주길 당부.

■ 처리결과 : 추진 중

⇒ 2022년부터 운영되는 경기아트온(블록체인 기반의 동영상 유통플랫폼)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양질의 공연 콘텐츠 생산을 진행 중임. 또한
경기도주식회사(경기배달특급 앱)와의 협업 이외에도 경기도교육청,
한국보육진흥원, KT(SEEZN 시즌)등과 같은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여 활발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281. 예술단공연이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
는 것도 필요하며, 도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도 병행해야 함.
수익률도 높지 않고 관객들도 많지 않다면 전면적으로 사업을 수정해야 하는 결
단도 필요함. 수원에서 주로 공연을 하는데 그 예산으로 경기도 내 전역을 돌며
순회공연을 하면 어떤지 제안함.

■ 처리결과 : 완료

⇒ 레퍼토리 재공연(경기도극단 ‘파묻힌 아이’, 경기도무용단의 ‘경합_The Battle’)을 통해 제작비를 절감하고, 초연 시 확보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수익 증대를 통해 예술단공연의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하겠음.

또한, 레퍼토리 시즌제 프로그램 구성 시 대중성을 반영한 작품(경기필하모닉 ‘게임음악회 리니지’)을 통해 수익 확대와 <어린이 연극 축제> 등의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사업을 진행하여 도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도 기여하겠음.

5-282. 예술단 공연마다 무대 셋업, 리허설에 너무 많은 기간 극장을 독차지하고 있음. 공연 생태계를 살리려면 극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셋업 커준과 기준 마련이 필요.

■ 처리결과 : 완료

⇒ 각 장르별 기본 셋업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자 및 스태프들의 안전한 공연 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무리한 일정의 공연 준비를 지양하고 있어 셋업기간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나 점이 있음.

향후, 타 지역에서의 레퍼토리 작품 상연, 재공연 시 셋업기간 축소 편성 등 다각도로 고려하여, 외부단체들에게 보다 많은 공연장 사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음.